



장애인인권 연구 주제 동향 분석: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전후,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적용하여*

강 경 숙** · 이 승 민***

Analysis of Trends in Research on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Applying Network text Analysis before and after Ratific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Kang, Kyungsook** · Lee, Seungmin***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research trends related to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ublished in Korea since 2000 and conducts network text analysis on the main subjects of research since the ratif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in 2009. Through this, the status quo and structure of disability rights research were interpreted, and the subdivided trends of research that can be seen through the cluster analysis were identifie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subsequent research. As a result of the study, ‘human rights education’ showed a high influence not only on the network map and the overall network map after the ratific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ut also on the cluster analysis results. However, education is mentioned only to a specific age or educational institution, and research on vocational education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v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eeds to be treated as human rights education. In terms of welfare, the main influence of definitional expressions such as disability or human rights sensitivity, prejudice, and human rights awareness was higher than the law. In addition, discussions about “residential facilities”, which are nodes directly related to the liv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emerged in earnest in the network after the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It seems that the paradigm of the actual state and perception of residential facilities is shifting to the discussion of deinstitutionalization policy.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include a closer look at how much disability rights have improved since the ratification of the UN CRPD. To this end, it is also meaningful to analyze the feeling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bout human rights violations. On the other hand,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are required to be improved to cultivate human rights sensitivity. Finally, empirical research on employment and labor rights directly related to the liv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needed.

Key Words :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uman Rights Education,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search Trends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etwork Text Analysis

* 본 논문은 2021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비 지원에 의해 수행됨

** 제 1저자,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Professor, Dept. of Secondary Special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대학원 시간강사(leeradi07@pusan.ac.kr)
Lecturer,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는 식당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 보조건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이다. 이 외에도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임성택, 2012),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침해(김기룡, 김삼섭, 2015; 김요섭, 2015) 사례도 적지 않다. 장애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장애감수성, 장애공감 문화 확산이 절실한 이유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020년 말 기준 263만 3천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1%를 차지한다(통계청, 2021). 이 중 후천적 장애인은 70%를 상회한다. 장애인 인구는 매년 점차 늘고 있지만, 장애인의 교육, 복지, 고용 분야에서의 차별 문제는 종종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 부족으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민솔희, 2021; 서동명, 2020; 이종민, 김유리, 2021). 게다가 최근 장애인 인권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장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 및 불법체포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더는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한 차별과 존엄성 침해를 경험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한 보도가 있었다(연합뉴스, 2022.3.14.).

그간 장애인권을 주제로 하여 연구는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의 비교연구(박연주, 김정우, 2015), 장애인권리협약(UNCRPD) 등 법 분야 연구(제철웅, 2014; 조경진, 박경순, 2016), 교육장면이나 거주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박정선, 2014; 박희수, 2016; 전동일, 김남희, 서정민, 2016), 고용 및 노동 분야에서의 인권 침해(김형근, 2014; 윤석인, 2015; 이종민, 김유리, 2021) 등 다양하다. 좀더 세분화하면 여성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장애인권을 다룬 연구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장애이해교육, 보건복지부의 인권교육, 고용 및 노동계에서의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장애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사업이 여러 부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2). 또한 장애인권 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 여러 곳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윤혜영, 조윤경, 2017). 취약계층 뿐 아니라 장애인 인권 보장이 선진국가의 바로미터라고 할 때 장애인에 대한 인권 의식과 민감성이 특수교육 분야 연구에서 주요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장애인권을 주제로 한 연구들을 분석하여 동향을 알아본 연구도 몇 편 있다. 이해

영, 신현기(2019)는 1993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장애학생의 인권 관련 학술 연구와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69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는데, 교육권을 주제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인권인식, 인권침해, 인권교육, 인권감수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학생 인권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정대영, 정성은, 이상로, 2018)에서는 200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국내 장애학생 인권교육에 관한 논문들의 전체적인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장애학생 인권교육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박계신(2017)은 유아 인권교육 연구동향 분석과 장애유아 인권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해 2005년도부터 2016년까지 수행된 국내 유아 인권교육 관련 연구동향과 추후 연구 방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유아 인권교육 관련 국내논문 17편의 학술지 논문을 선정하여 연구시기 및 연구 유형에 따른 일반적 동향을 살펴보고, 인권교육 활동에 시대적 상황과 요구를 반영하는 인권 요소를 포함하고 누리과정 운영시 인권 범주의 요소들이 균형 있게 실행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외 정명선, 이경준(2012)은 1993년부터 최근 2012년 상반기까지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를 다룬 국내학술지 60개 중에서 총 9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연구유형, 연구대상, 발표연도, 연구자 수의 분석기준을 가지고 연구동향을 분석했다. 법률 및 정책이 약 72%를 차지하지만, 법률 및 제도 비판에서 나아가 실천연구까지 다양하게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장애학생의 장애교육권, 인권교육과 같은 세부주제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논문 외에, 장애인 인권 전반을 통틀어 통시적으로 파악한 동향 분석 연구는 정명선, 이경준(2012)의 연구 이후에 실행되지 않았다. 게다가 2022년 현재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장애인 교육 및 고용 장려 예산이 삭감되는 등 장애인 정책이 변화되는 시점에서, 장애인권에 대한 그간의 연구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장애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를 실행하게 되었다.

연구동향 분석은 연구주제 및 분야, 연구방법 등 다양한 준거 중에서 ‘주제영역’을 중심으로 사회 변화에 따른 연구동향을 가장 집약적이고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준거로 제시한다(곽삼근, 박현욱, 김현주, 2014). 따라서 연구주제에 대한 동향 분석은 주제를 통해 매체, 대상, 정책, 범위, 용어 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한눈에 비교하고 파악하기 용이하며, 다양한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김영환 외, 2015).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장애인권 주제 연구가 어떤 내용으로 실행되었는지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NTA)’을 통해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이란 최근 개선된 RISS의 DB의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적 분석방법으로 근거이론과 내용분석 등을 통칭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텍스트를 통해 나타나는 의미와 그 텍스트 안에 있는 내용을 엄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박치성, 정지원, 2013; Roberts,

1997).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의 장점은 크게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동향분석 연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내용분석의 분석기준과 분류기준의 주관성을 배제하기가 용이한 점(곽삼근, 박현옥, 김현주, 2014), 둘째, 많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의미 네트워크 행렬표를 제시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데이터 간 상관관계의 해석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점이다(장정우, 최경호, 2012).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순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고, 정부보고서나 법, 제도, 정책과 연관된 법률 집행 연구나 연구기관이나 장애인 단체에서 나온 보고서는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분석대상에서는 제한하였다. 다만, 장애인권 분야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CRPD)’이 장애인계의 인권 및 권리 주장에 대한 주요 분기점이므로, 2009년 협약 비준 전후 텍스트 분석을 적용하여 연구동향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국내 장애인권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추이 및 이 논문의 키워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장애인 인권과 관련한 거시적이고 실제적 측면의 논의와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이후 국내 장애인권 관련 논문의 주요 주제어 빈도수와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둘째, 2009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 전후 장애인권 연구의 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셋째, 주제어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연구의 세분화된 동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0년부터 2022년 동안에 “장애인권”을 키워드로 포함하고 있는 학위 논문들과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에 출간된 학술논문들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RISS의 상세검색을 통해 ‘논문명’ 또는 ‘주제어’에

서 “장애인권”을 키워드로 갖고 있는 논문들을 1차로 찾아낸 후 이들 중에서 ㉠ 중복되어 나타난 논문들, ㉡ “장애인권”과 관련성이 없는 논문들을 제외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주제와 관련성이 없는 논문들을 찾아내기 위해 1차로 검색된 모든 논문들의 초록을 다운받은 텍스트 파일을 한글로 옮긴 자료를 출력하여 검토하였다. 이 검토 과정은 특수교육학 전공 교수와 교육공학박사가 함께 검토하였으며, 연구자간 협의를 거쳐 최종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RISS의 일반검색을 사용할 경우 단순히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포함하는 거의 모든 논문들을 찾아내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논문을 걸러내는데 많은 노력이 수반되므로, 상세검색을 통해 논문명 또는 주제어만을 대상으로 키워드를 검색하는 것이 정확도도 높고 효율적이다. 최종적으로 분석대상 논문들의 발행 연도별 빈도수는 <표 1>과 같다.

<Table 1> Number of Studies by Publication Year

Section	Year																					Sum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umber	5	4	5	1	4	8	5	4	4	9	9	6	13	17	14	7	12	16	13	10	166	
Percent	3	2.4	3	0.6	2.4	4.8	3	2.4	2.4	5.4	5.4	3.6	7.9	10	8.4	4.3	7.2	9.6	7.9	6	100	

2. 분석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표 1>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각 논문마다 다섯 개의 주요 주제어(Core Keyword)를 선정하고 이들 주요 주제어를 대상으로 빈도수 분석과 함께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Network Text Analysis: NTA)’을 실시하여 여기서 구축되는 네트워크 지도를 통해 관련 현상과 구조를 해석하였다(Popping, 2000). 본 연구의 자세한 분석은 김영환(2019)과 김영환, 이승민, 배혜림, 손미(2019)의 절차를 참고하였으며, 실제 그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RISS에서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다운로드한 텍스트 자료들을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목, 저자명, 연도, 권 호, 주제어, 초록으로 재분류하였다.

둘째, 주제어들은 저자가 사용한 원 자료(raw data)를 그대로 추출하되, 제시된 키워드가 5개가 안되거나 키워드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연구자가 함께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건당 5개 이내의 주요 주제어를 선정하였다.

주요 주제어 선정의 우선순위는 1) 제목에 있는 용어, 2) 저자가 제시한 주제어 중에서 한 주제어가 2개 이상의 키워드로 구성된 주제어의 분리 그리고 3) 초록에서 여러 번 언급한 용어의 순이었다. 이때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경우에는 3인 합의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용어로 통일하였고(예: ‘장애인보호법’, ‘장애자보호법’, → ‘장애인복지법’), 영어로 표현한 단어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주제어로 통합하였다(예: ‘UN장애인권리협약’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셋째, 확정된 830개의 주요 주제어(166편x5개)를 대상으로 KrKwic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박한우, Leydesdorff(2004)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빈도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빈도수가 2개 이상 나타난 주제어의 공출현 빈도를 나타내기 위해 매트릭스 형태의 coocc.dbf 파일을 생성하였다.

다섯째, coocc.dbf 파일을 Excel 파일로 변환한 후 네트워크 시각화 도구인 NodeXL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 관계를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연결정도 중심성을 기준으로 하여 노드와 엣지의 비중을 나타냈고, 이를 위해 ‘Fruchterman-Reingold’ 그래프 알고리즘으로 시각화하였다. 한편, 해당 노드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의 링크 개수 외에도 노드들 간의 네트워크 관계 형성 측면에서 중개자 또는 매개자 역할의 노드를 살펴보기 위해 연결정도 중심성과 매개중심성 분석을 병행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장애인인권 관련 논문 주제어 빈도수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

1) 빈도수 분석 결과

본 연구대상 논문인 2000년부터 2022년까지의 166건의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에 대해 편당 5개의 주요 주제어를 선정하였고, 교차 검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830개의 주제어들의 빈도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가장 높은 빈도의 주제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었다. 협약 또는 법률과 관련한 주제어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신보건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정신건강증진법’ 등이 나타났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다음으로는 ‘거주시설’ 과 ‘인권교육’ 이 각각 23번의 빈도수를 보여주었다. 시설과 관련된 유사 주제어로는 ‘사회복지시설’ 이 있었고, ‘탈시설’ 이 등장하였다. 장애유형 또는 대상과 관련한 주제어에서는 ‘정신장애’ 가 가장 많았으며, ‘장애학생’, ‘장애여성’, ‘장애아동’, ‘지적장애’ 등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 외에도 교육과 관련된 주제어는 ‘통합교육’, ‘특수교사’, ‘교육과정’, ‘보육교사’ 등의 주제어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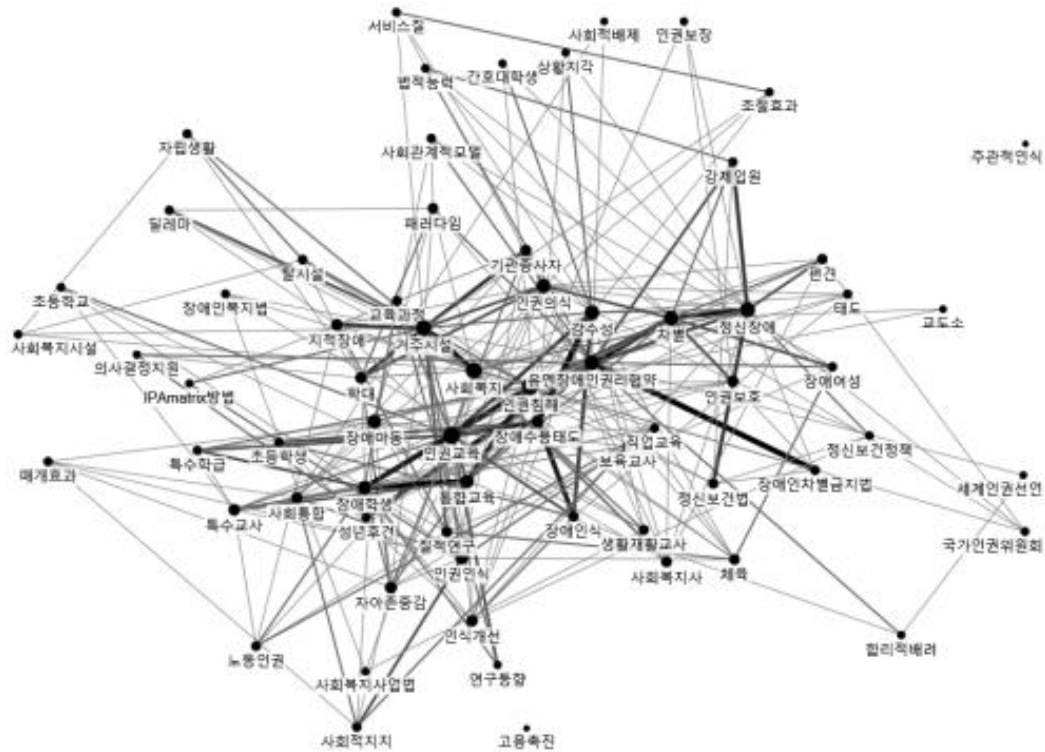
<Table 2> Keyword Frequency Analysis

Frequency	Keyword
30 ~	유엔장애인권리협약(30)
21 ~ 30	거주시설(23), 인권교육(23), 정신장애(20)
11 ~ 20	인권침해(17), 감수성(15), 장애학생(15), 통합교육(14), 차별(13), 장애인차별금지법(12)
6 ~ 10	장애수용태도(9), 기관종사자(8), 성년후견(8), 인권의식(8), 인권인식(8), 장애여성(8), 사회복지(7), 장애아동(6), 질적연구(6), 특수교사(6)
~5	강제입원(5), 장애인식(5), 지적장애(5), 인권보장(4), 인권보호(4), 자아존중감(4), 정신보건법(4), 체육(4), 탈시설(4), 교육과정(3), 보육교사(3), 사회적지지(3), 사회통합(3), 생활재활교사(3), 연구동향(3), 의사결정지원(3), 인식개선(3), 자립생활(3), 장애인복지법(3), 초등학교(3), 패러다임(3), 학대(3), IPAmatrix방법(2), 간호대학생(2), 고용촉진(2), 교도소(2), 국가인권위원회(2), 노동인권(2), 딜레마(2), 매개효과(2), 법적능력(2), 사회관계적모델(2), 사회복지사(2), 사회복지사업법(2), 사회복지시설(2), 사회적배제(2), 상황지각(2), 서비스질(2), 세계인권선언(2), 시민사회(2), 인권실태(2), 인권조례(2), 인권존중(2), 일반교사(2), 자기옹호(2), 적법절차(2), 접근권(2), 정신건강증진법(2), 정신보건정책(2), 조절효과(2), 주관적인식(2), 직업교육(2), 초등학교(2), 태도(2), 특수학급(2), 편견(2), 합리적배려(2)

2) 네트워크 분석 결과

다음 <그림 1>은 장애인인권 관련 연구의 주요 주제어 네트워크 지도이고, <표 3>은 주요 주제어의 빈도수와 비교하여 연결정도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을 수치화한 것이다. 빈도수 분석의 결과와 달리, 연결정도 중심성은 ‘인권교육’, ‘인권침해’, ‘사회복지’, ‘거주시설’, ‘정신장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인권교육’이 다른 노드들과의 연결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수집한 연구물에서 장애인권에 관해 협약이나 법률보다 교육적 측면에서 다루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매개중심성에서도 동일하게 ‘인권교육’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빈도수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신보건법’과 같은 법률 관련 주제어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정도에서는 30순위에서 없거나,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매개중심성을 살펴보면, 연결정도 중심성과 동일하게 ‘인권교육’, ‘인권침해’가 동일하게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반면 ‘거주시설’은 빈도와 연결정도에 반해 영향력있는 노드를 매개하고 있는 정도가 ‘인권교육’, ‘인권침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같은 다른 상위 노드에 비해 비교적 낮았다.



<Figure 1> Network Map between Research Topics related to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able 3> Results of Centrality Analysis of Nod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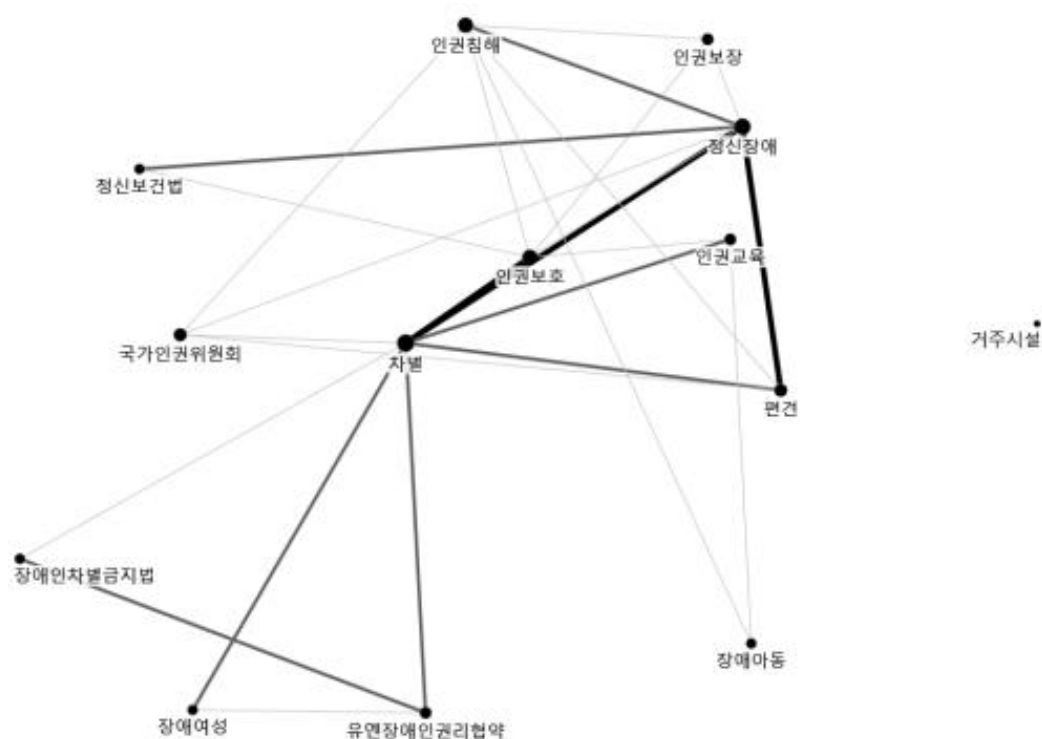
Rank	Frequency	Degree(Cd)	Betweenness(Cb)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30)	인권교육(27)	인권교육(291.905)
2	거주시설(23)	인권침해(25)	인권침해(267.547)
3	인권교육(23)	사회복지(23)	유엔장애인권리협약(257.975)
4	정신장애(20)	거주시설(21)	사회복지(214.963)
5	인권침해(17)	정신장애(20)	정신장애(174.31)
6	감수성(15)	유엔장애인권리협약(19)	거주시설(172.854)
7	장애학생(15)	차별(18)	차별(145.347)
8	통합교육(14)	감수성(18)	장애아동(129.258)
9	차별(13)	인권의식(17)	감수성(125.518)
10	장애인차별금지법(12)	장애학생(15)	인권의식(118.136)

Analysis of trends in research on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applying 243 network text analysis before and after ratific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1	장애수용태도(9)	장애아동(15)	통합교육(112.517)
12	기관종사자(8)	통합교육(15)	인권인식(64.53)
13	성년후견(8)	인권인식(13)	장애학생(62.053)
14	인권의식(8)	자아존중감(11)	학대(55.896)
15	인권인식(8)	장애수용태도(10)	사회통합(51.355)
16	장애여성(8)	학대(10)	자아존중감(51.13)
17	사회복지(7)	특수교사(10)	체육(31.163)
18	장애아동(6)	인권보호(10)	인권보호(31.122)
19	질적연구(6)	지적장애(10)	장애수용태도(30.931)
20	특수교사(6)	인식개선(10)	특수교사(28.792)
21	강제입원(5)	사회통합(9)	인식개선(26.485)
22	장애인식(5)	기관종사자(9)	기관종사자(25.573)
23	지적장애(5)	패러다임(8)	질적연구(23.506)
24	인권보장(4)	질적연구(8)	지적장애(23.082)
25	인권보호(4)	체육(8)	패러다임(22.441)
26	자아존중감(4)	사회복지사(8)	생활재활교사(21.55)
27	정신보건법(4)	생활재활교사(7)	장애인복지법(11.771)
28	체육(4)	정신보건법(7)	정신보건법(11.768)
29	탈시설(4)	장애인식(7)	성년후견(8.084)
30	교육과정(4)	편견(7)	탈시설(7.056)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전후 논문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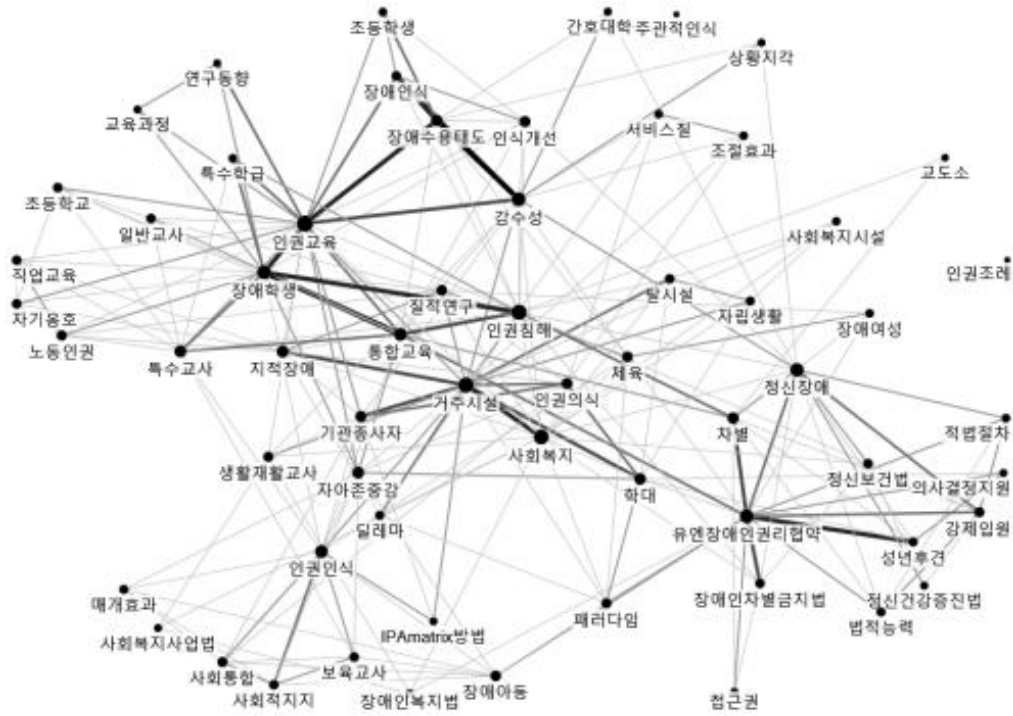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전후에 따라 연구의 주요 주제가 어떠한 변화 양상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분석 대상 논문을 비준 전과 후로 나누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2>는 분석 대상 논문 중 32건을 대상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전 연구의 주제어간 네트워크 지도의 결과이다. ‘차별’은 연결정도중심성(8)과 매개중심성(30.667)측면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는 노드였으며, 특히 ‘인권보호’와 ‘정신장애’와 공출현빈도가 높았다. 상대적으로 노드의 수가 적기는 하나, ‘거주시설’의 경우 <그림 1>의 전체 네트워크 지도와 비교할 때, 2010년 이전에는 관련 논문의 주제어간 네트워크에서 비중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 Network of Keywords for Research before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한편, <그림 3>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후 연구의 주제어간 전체 네트워크 지도를 살펴보면, ‘인권교육’, ‘인권침해’, ‘사회복지’, ‘거주시설’ 등 노드들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인권교육’은 연결정도(23) 및 매개중심성(262.495)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대상자 측면의 노드도 ‘장애아동’이나 ‘장애여성’ 등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교사’, ‘학생’, ‘기관종사자’와 같은 노드들이 다른 노드들과 관계를 갖고 있었다. 또한 비준 전 네트워크 지도에서 나타났던 ‘차별’, ‘인권침해’, ‘편견’ 등 부정적인 노드의 비중이 높았으나, 비준 후 네트워크에서는 ‘감수성’, ‘인권인식’, ‘자아 존중감’ 등의 노드들도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alysis of trends in research on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applying network text analysis before and after ratific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45



<Figure 3> Network of Keywords for Research after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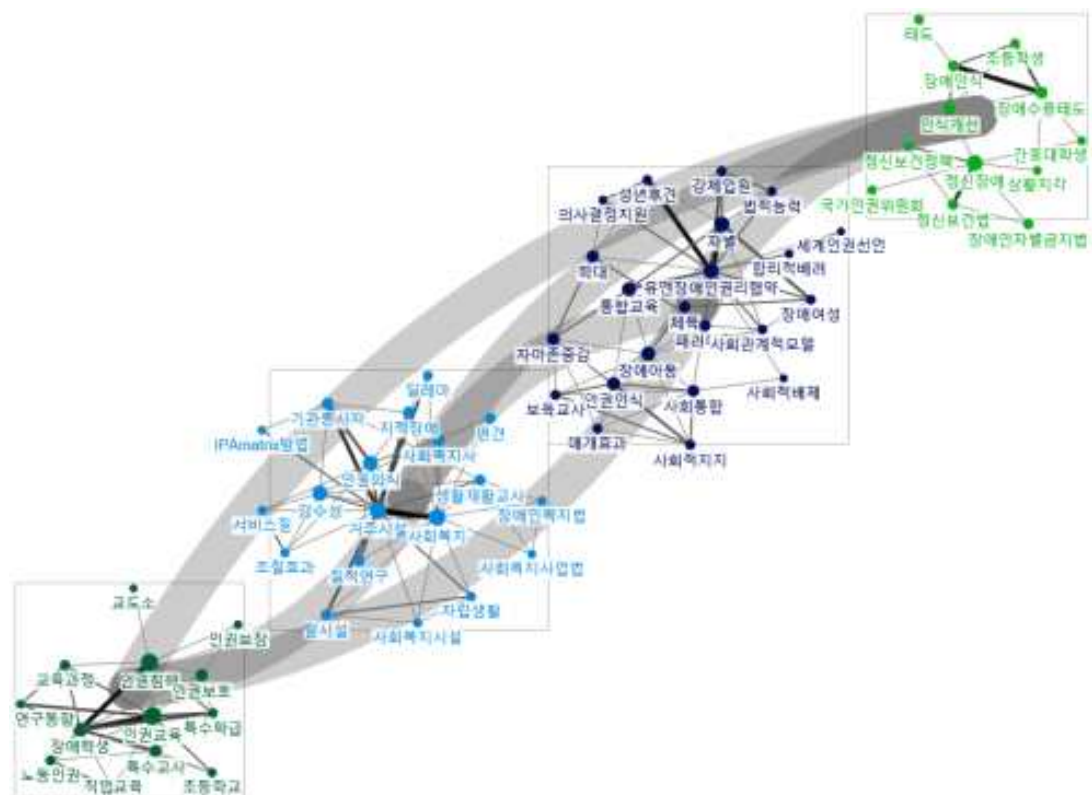
3. 장애인인권 관련 연구 주제어 클러스터 분석 결과

장애인인권 관련 연구물의 전체 네트워크에서 노드들의 군집성을 살펴보기 위해 Clauset-Newman-Moore 알고리즘을 적용한 클러스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노드들은 <표 4>와 같이 크게 네 가지 그룹으로 클러스터링이 되었다. 그룹 1은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로 ‘인권침해’, ‘장애학생’, ‘특수교사’ 등의 노드와 응집되었다. 그룹 2는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하여 ‘거주시설’, ‘감수성’, ‘인권의식’ 등과 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룹 1이 교육적 측면의 노드와 연결되어 있어 ‘특수교사’, ‘특수학급’, ‘초등학교’ 등의 노드가 군집된 반면, 그룹 2에서는 ‘사회복지사’와 ‘기관종사자’의 노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룹 3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중심으로 다른 그룹에 비해 비교적 많은 노드를 포함하고 있어 ‘인권의식’, ‘통합교육’, ‘성년후견’, ‘장애여성’ 등과 같이 다양한 주제어를 응집하고 있었다. 끝으로 그룹 4는 ‘정신장애’를 중심으로 ‘장애인식’, ‘장애수용태도’와 같은 정의적 측면의 주제어와, ‘정신보건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지법' 과 같은 제도적 표현의 주제어와도 응집되어 있었다. 이를 도식화한 클러스터 지도는 <그림 4>와 같다.

<Table 4> Keywords for Four Groups

그룹	주요 주제어
G1	인권교육, 인권침해, 장애학생, 특수교사, 인권보호
G2	사회복지, 거주시설, 감수성, 인권의식, 사회복지사
G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차별, 장애아동, 통합교육, 인권인식
G4	정신장애, 장애인수용태도, 장애인식, 정신보건법, 장애인차별금지법



<Figure 4> Cluster of Research Keywords Related to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장애인 인권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논문에 등장한 핵심 주제어의 빈도수 분석, 네트워크 분석, 그리고 클러스터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의 논의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장애인인권에 관한 교육적 측면이다. ‘인권교육’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후의 네트워크 지도 및 전체 네트워크 지도에서 뿐만 아니라 클러스터 분석 결과에서도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이와 함께 ‘통합교육’, ‘교육과정’, ‘장애학생’, ‘특수학급’, ‘초등학교’ 등의 교육관련 주제어도 함께 등장하였다. 다만, 비준 전에 비해 장애인인권에 관한 대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긴 하였으나, 이러한 영향력이 ‘초등학생’, ‘장애아동’, ‘초등학교’ 등의 특정 연령이나 교육기관에 한정으로 등장하며 ‘직업교육’과 같은 실제적 교육을 다루는 주제어는 없거나 다소 영향력이 낮았다. 실제 박정식(2020a, 2020b)은 특수학교 현장에서 진로와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및 현장실습 담당교사들이 노동인권을 포함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교육자료 및 지원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연구물을 살펴봐도 다른 교육적 주제에 비해 장애인의 진로와 관련된 연구물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로 인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의식과 감수성이 민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실태조사(2019)를 보면 장애인은 여전히 인권보호 밖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고, 가장 취약한 차별현상이 노동 및 고용 분야인 것을 알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장애인 노동인권 증진 방안(국가인권위원회, 2018)으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과 함께 중증장애인 고용(고용률 19.5%)이 전체 장애인(36.5%)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므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기에 노동권과 함께 직업교육에 관한 실제적인 논의가 인권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인권에 관한 복지적 측면이다. ‘사회복지’가 중심인 클러스터(G2)는 장애인의 실제적 생활 및 거주와 관련된 주제어가 나타나, ‘인권교육’이 중심인 클러스터(G1)와 구분되었다. 해당 클러스터에서도 법률보다는 장애 혹은 인권에 대한 정의적 표현의 주제어(감수성, 편견, 인권의식 등)가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신장애’ 노드가 중심인 그룹(G4)에서만 법률적 주제어가 한정적이며, 낮은 영향력을 가지고 포함되었다는 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노드인 ‘거주시설’에 대한 논의가 협약 비준후의 네트워크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와 인식의 패러다임이 탈시설 정책에 대한 논의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탈시설’ 노드의 경우, 빈도나 연결정도가 낮음에 비해 네트워크에서 매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거주시설에 대한 대안적 관점의 주제어가 영향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연구의 실태와 사례가 ‘거주시설’과 관련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신옥주, 2011; 임성택, 2012), 장애인의 탈시설 및 거주 전환 정책은 장애인의 성원권을 회복하고 지역공동체에서의 자립을 위한 전제요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김명연, 2020; 김지열, 2020).

셋째, 교육 및 복지 측면을 아울러 장애인 인권 관련 연구에서의 핵심은 연구자가 예상한 대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다. 장애인권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기도 했고, 장애인권 증진에 모든 법률과 비교해 영향력이 높으며 상위 노드들을 매개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 후 네트워크와 장애인 인권 전체의 네트워크의 형태와 중심노드의 구성이 유사한 것으로 볼 때, 장애인 인권 연구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으로 인해 다양한 연구 주제가 논의되었다고 판단된다. 제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국제법으로서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장애인의 인권은 단순한 복지접근이 아닌 인권모델로의 접근을 중시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장애인권 정책 패러다임 변화 자체의 당위성과 변화 방향의 정당성을 논의 내용의 논리적 근거로 삼아야 한다. 이는 국제 장애인권리협약을 국내법 평가의 한 기준(준거 틀)으로 설정하여 관련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2009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된 이후 장애인인권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과 우리나라 법제 간의 간극을 알아보고 이를 매우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당사자 중심으로 장애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장애인권 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조정하고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민감하고 불편한지, 어떤 분야가 급선무인지, 그리고 교육을 통해 어떻게 변화를 꾀할지 제안할 필요가 있다. 중요도와 실행도 간의 간극(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비교하거나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는지 결과물을 도출하는 연구도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권을 준수하는 교육기관이나 복지시설, 기업체와 그렇지 않은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지침, 내규 등을 확인해서 결과적으로 장애인권의 차별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요인을 찾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

둘째,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이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쉬운 말로 변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해하기 쉽게 교수학습방법 및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재를 개발하는 등 장애인권 교육을 위한 작업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장애인에게 교육, 복지, 노동 분야의 인권을 이해하도록 하고, 스스로 자기를 옹호할 수 있는 역량을 길

러주는 일환이기도 하다.

셋째, 최근 장애인 고용 및 노동인권에 대한 연구 부족이 드러났으니 이 분야 연구가 좀더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국내 장애관련 각 법의 의의 및 판례 중심으로 장애인의 노동인권 및 고용차별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이다. 반면 사용자 측의 고민도 경청해야 한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용자 측의 어려움도 확인하고, 장애인이 각성해야 할 근로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교육할 수 있는 기회도 강조해야 한다. 상호존중 문화를 통해 노동계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하기 때문이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흐름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확산에 따른 장애인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언론에서는 기업의 장애인 지원은 봉사나 기부 차원을 넘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 고용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이 또한 의무 차원에서 이뤄지며 그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최근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상생 모델이 각광받는 분위기라고 밝히고 있다(아주경제, 2021.6.11.)

넷째, 그간 실행된 적 없는 역대정권별로 구분하여 장애인권이나 차별 주제를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학술 연구 보다는 국회 보고서나 법률 제정을 위한 과정을 따라 연구할 수도 있고, 각종 SNS의 댓글 분석 등을 통해 실제 장애인권 침해 혹은 차별 사례들을 모아 분석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 간의 정책이 연구자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줬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고, 역대정권별 정책기조에 따라 연구자들이 성실하게 따라왔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간 정권별 장애인권 연구동향 분석은 실행된 적이 없다. 이러한 장애인권 이슈들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정부별 철학에 따라 어떻게 사회가 조응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Cho, K. J., & Park, K. S. (2016). Consideration of effective measures to secure domestic norms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6(3), 39-57.

[조경진, 박경순(2016). 장애인 인권관련 국내규범의 실효성확보방안 연구. *직업재활연구*, 26(3), 39-57.]

Chun, D. I., Kim, N. H., & Seo, J. M. (2016). Comparative study on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human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taffs in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8), 11-18.

[전동일, 김남희, 서정민(2016).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과 종사자의 인권 인식 비교. *디지털*

- 탈용복합연구, 14(8), 11-18.]
- Im, S. T. (2012). Human rights in the residential facility of the disabled. *The Justice*, 128, 7-59.
[임성택(2012).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그 현황과 대책. *저스티스*, 128, 7-59.]
- Jang, J. W., & Choi, K. H. (2012). Statistics Act Content Analysis us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Journal of Korean official statistics*, 17(2), 53-66.
[장정우, 최경호(2012).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이용한 통계법 내용분석. *통계연구*, 17(2), 53-66.]
- Jang, M. S., & Lee, K. J. (2012). Analysis and Suggestions on Research Trends Surround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Crisisonomy*, 8(5), 143-164.
[정명선, 이경준(2012). 국내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동향 분석과 제언. *Crisisonomy(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8(5), 143-164.]
- Je, C. U. (2014). Korean Adult Guardianship and Its Future Tasks: From the Perspective of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Family Law*, 28(2), 205-244.
[제철웅(2014).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가족법연구*, 28(2), 205-244.]
- Jeong, D. Y., Jeong, S. E., & Lee, S. R. (2018). An Analysis of South Korea Research Trends on Human Rights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Rehabilitation Science Research*, 57(3), 215-238.
[정대영, 정성은, 이상로(2018). 장애학생 인권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특수교육 재활과학연구*, 57(3), 215-238.]
- Joint ministries (2022). 5th Comprehensive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8-2022) 2022 Implementation Plan.
[관계부처합동(2022).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2022년 추진계획(안).]
- Kim, K. R., & Kim, S. S. (2015). Human Rights Viol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Inclusive Education. *Special Education Research*, 14(2), 57-59.
[김기룡, 김삼섭(2015). 통합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인권 침해 실태. *특수교육*, 14(2), 57-79.]
- Kim, Y. H. (2019). Research Subject Trend Analysis on Korean Innovative Schools with Network Text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5(6), 113-132.
[김영환(2019). 국내 혁신학교 관련 연구주제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5(6), 113-132.]
- Kim, Y. H., Lee, S. M., Bae, H. R., & Son, M. (2019). Research Subject Trend Analysis on Educational Innovation with Network Text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9(1), 91-116.
[김영환, 이승민, 배혜림, 손미(2019). 교육혁신관련 연구주제 변화 동향분석: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29(1), 91-116.]
- Kim, Y. S. (2015). Human Rights Violation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Inclusive Education and Its Prevention Strategy, *Special Education Research*, 14(3), 265-288.

Analysis of trends in research on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applying 251 network text analysis before and after ratific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김요섭(2015). 통합교육 현장의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 및 예방 방안. **특수교육**, 14(3), 265-288.]
- Kwak, S. G., Park, H. O., & Kim, H. J. (2014). The Research Trends in The Publications on University-based Lifelong Education -Based on theses and dissertations published in Korea from 1982 to 2012.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0(1), 63-92.
- [곽삼근, 박현옥, 김현주(2014). 대학평생교육 연구동향 분석 : 1982~2012년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20(1), 63-92.]
- Lee, H. Y., & Shin, H. K. (2019). A trend analysis of human rights research on students with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Journal*, 35(2), 197-221.
- [이혜영, 신현기(2019). 장애학생 인권 관련 연구의 경향 분석. **특수교육논총**, 35(2), 197-221.]
- Lee, J. M., & Kim Y. R. (2021). Effects of Labor Human Rights Education Using Video Modeling on Self Advocacy of High School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23(1), 175-206.
- [이종민, 김유리(2021). 비디오모델링을 활용한 노동인권교육이 지적장애 고등학생의 직업 관련 자기옹호에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연구**, 23(1), 175-206.]
- Leydesdorff, L. (2003). *A sociological theory of communication: The self-organization of the knowledge-based society*, Universal Publishers.
- Min, S. H. (2021). Qualitative Case Study on Human Rights Perception Experienced by Women with Disabilities in Sport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29(2), 35-54.
- [민솔희(2021). 여성 장애인이 체육활동에서 경험한 인권 인식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9(2), 35-54.]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19).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s Decisions on Human Rights Violat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국가인권위원회(2019).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침해 결정례집.]
- Park. G. S. (2017). An Analysis of Trends in Research on Human Rights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and The Direc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7(2), 171-198.
- [박계신(2017). 유아 인권교육 연구동향 분석과 장애 유아 인권교육 방향성 탐색. **유아특수교육연구**, 17(2), 171-198.]
- Park. H. S. (2016). The Study of Social Welfare Responsibility for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using the Disabled Residential Facilities. *Citizen and Humanities*, 31, 9-32.
- [박희수(2016).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사회복지적 책임에 관한 연구. **시민인문학**, 31, 9-32.]
- Park. J. S. (2014). A study on supervision and human rights in the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44, 163-190.
- [박정선(2014). 장애인거주시설의 관리감독과 인권보장. **한국가족복지학**, 44, 163-190.]
- Park, J. S. (2020). Exploration of Areas and Contents of Education through the Perceptions

- and Actual Conditions of Special Teachers Regarding Labor Rights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1(4), 59-91.
- [박정식(2020). 장애학생의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과 실태 및 교육 영역과 내용 탐색.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1(4), 59-91.]
- Park, Y. J., & Kim, J. W. (2015). Study on analyzing judicial precedents for protection of rights for the disabled -Comparis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and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27, 5-23.
- [박연주, 김정우(2015).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관련한 판례분석연구 -헌법재판소판례와 UN 장애인권리협약과의 비교-. **한국장애인복지학**, 27, 5-23.]
- Popping, R. (2000) Network Text Analysis. In: Popping, R., Ed., *Computer-Assisted Text Analysis*, Sage, London, 97-128. <https://doi.org/10.4135/9781849208741.n6>
- Seo, D. M. (2020). Analysis of Human Rights Survey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olicy Proposal: Focusing on Seoul and Gyeongin Area. *Journal of Human Ecology*, 24(2), 27-47.
- [서동명(2020). 제가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분석 및 정책제언 : 서울·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논총**, 24(2), 27-47.]
- Shin, O. J. (2011). Eine Studie zur Verstrkung des Menschenrechts der Behinderten. *Public land law review*, 54, 501-524.
- [신옥주(2011). 장애인의 인권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연구. **토지공법연구**, 54, 501-524.]
- Yun, H. Y., & Cho Y. K. (2017). Comparison on the Recognition of Importance and the Implementation of Child Right between Child Care and Education Teachers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in Inclusive Setting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4(4), 303-328.
- [윤혜영, 조윤경(2017). 장애통합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특수교사의 아동 인권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실행도 비교.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4), 303-328.]

<국문 초록>

장애인인권 연구 주제 동향 분석: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전후,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적용하여

강 경 숙 · 이 승 민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2000년 이후 발표된 장애인권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2009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PRD)이 비준 이후 연구물의 주요 주제어를 대상으로 네트워크텍스트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권 연구의 현상과 구조를 해석하였고, 주제어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연구의 세분화된 동향을 파악하여 후속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인권교육’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후의 네트워크 지도 및 전체 네트워크 지도에서뿐만 아니라 클러스터 분석 결과에서도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다만, 특정 연령이나 교육기관에 한정하여 교육이 언급되어 장애인의 삶과 직결되는 직업교육에 대한 연구가 인권교육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복지적 측면에서는 법률보다 장애 혹은 인권에 대한 감수성, 편견, 인권의식 등 정의적 표현의 주제어가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노드인 ‘거주시설’에 대한 논의가 협약비준 후의 네트워크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와 인식의 패러다임이 탈시설 정책에 대한 논의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 후 장애인권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체감 정도에 관해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한편 인권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이 요구된다. 끝으로 장애인의 삶과 직결되는 고용 및 노동인권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장애인권, 인권교육,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권 연구동향,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논문 접수(Received): 2022. 11. 10. / 심사 시작(Examined): 2022. 11. 10. / 게재 확정(Accepted): 2022. 12. 15